

청소년 흡연 실태와 대책

박 명 윤*

청소년 흡연이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여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8년도 「세계금연의 날」 슬로건을 「담배연기 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정하여 세계 각국에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이 공동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 조사결과와 외국의 금연운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흡연문제 대책으로 가정의 금연지도 및 친권자의 의무강화, 금연교육의 확대 실시, 흡연학생의 중징계 처분, 학교 사회사업제도의 도입, 청소년 문화의 건전육성, 청소년 금연을 위한 사회운동 전개 등이 필요하다.

I.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창립 40주년이 되던 1988년에 5월 31일을 “세계금연의 날” *World's No-Tobacco Day*로 선포하고 담배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 규범으로 금연을 장려하여 담배연기가 없는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1990년 「세계금연의 날」 주제를 “청소년과 어린이를 담배로부터 구하자” *Childhood and Youth Without Tobacco*로 정하여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계속되고 있어 1998년에 다시 “담배연기 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 *Growing Up Without Tobacco*을 슬로건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여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보호법의 시행(1997년 7월 1일)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소장

없게된 청소년들의 담배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가정법원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담배 9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박 모(16)군 등 2명과 편의점에서 담배 16보루를 훔친 이 모(16)군에 대해서 절도죄를 적용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담담판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박군 등이 담배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 어린 피고인이 절도까지 한 것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실업문제와 함께 청소년 범죄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II. 흡연실태

1. 담배의 유래

담배가 인간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인류문화에 끼친 영향은 크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미 2000여년 전부터 담배를 피웠다. 이것이 유럽에 전파된 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1492년 이후가 되며 우리나라는 근세에 들어와서 전래되었다.

아시아지역은 명나라 만력(萬曆)말에 필리핀으로부터 복건성 지방에 전파되고, 일본도 이 무렵에 담배를 재배하였는데 임진왜란(1592년) 때에 왜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이조 광해군 8년(1616년)경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광이 1618년에 편찬한 <승평읍지>, <전라도 순천읍지>에는 이 지방에서 담배를 많이 재배했으며 중요한 특산 약재라고 기록하고 있다.

담배가 전래된 당시 우리나라는 의약품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담배를 약으로 간주하여 소화기계질환 또는 기생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화기계 증상의 민간요법으로 흡연을 하였으며 특히 담(痰)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고 선전되었다.

우리 속담에 ‘담배 잘 먹기는 용귀돌(龍貴玆)일세’라는 말이 있다. 즉 담배를 잘 피우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또한 ‘담배는 용골대(龍骨大)로 피우네’하는 속담도 줄담배 피운다는 의미가 된다. 심훈의 <상록수>에는 “담배씨루 뒤웅

박을 파려고 드는 제형허구 씀을 다 했으니까요”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소견이 좁고 잘아서 잔소리가 심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담배는 우리 속담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기호품이 되었다.

2. 세계 5위의 「골초왕국」

세계보건기구(WHO) 연례보고서(1997)에 따르면 전세계의 흡연자수는 인구 5명중 1명 꼴인 11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남자는 세계인구의 47%, 여자는 12%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들 흡연자가 연간 5조 2천개비의 담배를 소비하고 있다. 폴란드가 성인 1인당 연간 3,620개비의 담배를 피워 세계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순이라고 밝혔다. 1인당 담배 소비량 5위인 한국에서는 성인남자의 67%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흡연율은 미국 28%, 스웨덴 24% 등으로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처음 소개된 이후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양반계층과 중인들의 성인층에는 애용되었으나 당시 담배의 생산량, 가격, 사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상민들은 흡연할 기회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당시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극히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담배가 도입된 이후에 강력한 제지를 가하지 않으면 남자 20~40대 성인의 75%가 흡연을 한다. 즉 네 사람의 성인 남자중 세사람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75%에 달한 시기는 1950년 전후이며, 일본은 1960년경이 된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6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75년에는 80%까지 달했으나, 1987년에 74% 그리고 최근에는 62~63%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경우, 1977년 전국 성인 남녀 1만 1천2백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 흡연율이 34.6%로 1996년의 35.1%에 비하여 1.5% 줄었으며,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56.1%로 전년도에 비해 1.4% 줄었다. 흡연율 감소의 원인으로 는 건강 붐, 금연운동의 확대, 소비세 인상에 따른 담배 가격 상승 등을 꼽고 있다.

외국의 경우 1년에 1.5% 정도 흡연율이 감소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감소율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는데 비해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

다.

3. 청소년 흡연을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걱정스러운 현상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이 최근 10여년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부터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40%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 이것이 미국학생 18%, 일본학생 22%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에 속하여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흡연은 상당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교복 및 두발 자유화를 계기로 행동의 제약이나 통제가 어려워졌으며, 최근에는 양담배의 수입과 광고의 허용, 무분별한 판촉활동 등의 영향으로 이제 흡연은 청소년들에게 보편화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어느 중학교 3학년 47명 중 15명이 담배를 피우며, 그 중 7명은 학원에 갈 때 가방 속에 담배와 라이터를 넣고 다닌다고 조사되었다. 한편 어느 고등학교 2학년 49명중 26명이 흡연을 하며, 그 중 12명은 화장실 등 은밀한 곳에 담배를 감추어 두고 피우며, 교문밖 적당한 곳에 담배를 맡겨 놓고 다니면서 피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이 전국 시·도의 남·여 중·고등학교 각 학년당 10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남자 60개교의 60개 학급, 여자 60개교의 60개 학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1997년 사이에 흡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녀 학생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된 전체 학생의 수

연 도	단위: 명	
	남 자	여 자
1988	3,439	—
1989	3,055	—
1991	2,934	3,169
1993	3,179	3,910
1995	2,598	2,814
1997	2,300	2,493

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1988년 0.4%에서 1997년 1.5%로, 2학년은 2.1%에서 3.8%로, 3학년은 2.7%에서 6.9%로 각각 증가했으며,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는 1학년생 흡연율 0.8%(1991년)가 3.2%(1997년)로, 2학년생은 1.0%에서 4.4%로, 3학년생은 1.8%에서 3.7%로 증가하였다.

고등학생 흡연율은 1학년 남학생의 경우 9.5%(1988)에서 21.6%(1997)로, 2학년생은 19.1%에서 41.0%로, 3학년생은 40.4%에서 41.6%로 각각 증가했으며, 1학년 여학생의 흡연율은 1.3%(1991)에서 9.9%(1997)로, 2학년은 1.9%에서 7.2%로, 3학년은 4.3%에서 7.3%로 각각 증가하였다.

연도별(1988~1997) 남녀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단위: %

성별	연 도	중학교			계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자	1988	0.4	2.1	2.7	1.8	9.5	19.1	40.4	23.9
	1989	1.8	1.6	2.0	1.5	17.3	26.8	50.0	32.0
	1991	1.9	3.8	3.6	3.2	14.3	38.2	44.8	32.4
	1993	2.0	2.7	3.4	2.6	13.2	24.3	41.9	26.2
	1995	1.3	5.9	7.0	4.8	21.0	33.3	36.7	30.2
	1997	1.5	3.8	6.9	3.9	21.6	41.0	41.6	35.3
여자	1991	0.8	1.0	1.8	1.2	1.3	1.9	4.3	2.4
	1993	1.4	1.5	1.1	1.4	1.2	2.7	2.6	2.2
	1995	1.2	2.8	3.6	2.6	3.8	5.1	5.6	4.7
	1997	3.2	4.4	3.7	3.9	9.9	7.2	7.3	8.1

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청소년 흡연자의 평균 흡연량을 살펴보면 하루 20개비 이상을 피우는 골초의 비율이 1997년 경우 남자 중학생(9.7%)이 고등학생(4.4%)보다 2배 이상이며, 여학생도 중학생(4.9%)이 고등학생(2.7%)보다 훨씬 높았다. 연도별 중·고등학생 흡연자의 평균 흡연량은 표 3과 같다.

또한 청소년들의 외국산 담배 흡연율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남자 고등학생 흡연자의 경우 1991년에는 5.8%였으나 1995년 14.9%로, 그리고 1997년에는 22.9%로 증가하였다.

표 3: 중·고등학생 흡연자의 평균 흡연량

단위: 개비

성별	연도	중 학 생					고 등 학 생				
		<5	6~10	11~15	16~20	20+	<5	6~10	11~15	16~20	20+
남자	1988	60.0	10.0	0.0	30.0	0.0	37.4	38.6	11.0	13.0	0.0
	1989	59.1	13.6	9.1	4.5	13.6	45.9	29.9	11.9	6.3	6.0
	1991	68.5	16.7	1.9	3.7	9.3	42.1	25.8	12.2	8.7	11.2
	1993	48.4	12.9	6.5	0.0	9.7	39.5	29.4	11.5	6.9	6.3
	1995	53.5	25.6	6.5	2.3	7.0	39.8	30.1	15.0	6.8	8.3
	1997	70.7	12.2	4.9	2.4	9.7	35.4	37.1	17.4	5.8	4.4
여자	1991	68.4	5.3	5.3	0.5	0.5	45.1	27.5	5.9	3.9	17.6
	1993	88.9	5.5	0.0	2.8	2.8	58.3	16.7	20.8	0.0	4.2
	1995	62.5	16.7	8.3	4.2	8.3	53.5	25.6	11.6	2.3	7.0
	1997	73.2	14.6	7.3	0.0	4.9	50.9	35.5	8.2	2.7	2.7

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III. 흡연피해

1. 흡연과 청소년 건강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약 3백50만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매년 1천만명이 희생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AIDS, 결핵, 교통사고, 자살, 분장 학살 등에 의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우리나라도 연간 3만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면 평균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수명이 약 10~15년 단축된다. 오래전에 영국왕립의사회는 담배 1개비를 피울 때마다 5분 30초씩 수명이 단축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10대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흡연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져서 수명이 평균 22년이 단축되어 중년의 나이에 죽게 된다.

의학자들은 인간의 건강과 장수를 위협하는 최대의 단일 원인으로 흡연을 꼽고 있다. 1994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담배와 건강에 관한 국제회의」

에서 발표된 과거 40년간 조사된 흡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사망 원인 54종류 가운데 흡연과 관련된 것이 무려 25가지나 된다. 흡연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질병 가운데 암이 17종을 차지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담배갑에 인쇄된 경고문이다. 미국은 담배갑에 「흡연은 암의 원인이 된다. 흡연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라는 강한 경고문을 큼직하게 붙이도록 했다. 흡연의 가장 큰 해악은 역시 폐암이다. 미국 암협회는 60년부터 80년 사이 흡연으로 인한 미국인 폐암 사망자가 남성은 2배, 여성은 6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25배 높다. 또 15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사망 위험비가 18.7배 높고, 15~19세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는 14.4배가 높다.

우리나라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1980년 인구 10만명당 5명에서 1992년 24명으로 약 5배가 증가하여 모든 암 사망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지 대체로 30년이 지나면 폐암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 흡연 시작 연령이 20세 이하로 낮아졌고, 청소년 흡연율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훨씬 많을 것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약 4천여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작은 담배속에 어찌면 그렇게 많은 물질이 들어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담배가 불에 탈 때 그 중심온도가 섭씨 9백도에 이르게 되어 유기물질이 열분해, 열합성, 증류, 승화, 수소화, 산화, 탈수화 등의 과정을 거쳐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생성해 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니코틴, 타알, 일산화탄소 등이다.

니코틴Nicotin은 마약과 비슷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므로 니코틴 중독이 된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금단증상이 일어난다. 또한 니코틴은 강력한 중추신경(뇌신경) 흥분제로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서 남용되고 있는 히로뽕 만큼 위험한 흥분제이다. 담배로 흡입되는 니코틴은 소량씩 흡입되므로 히로뽕과 같이 강력한 중독 및 정신병 후유증이 생기지 않는다.

담배 한 개피에는 1mg정도의 니코틴이 들어 있는데 40mg이면 인간의 치사량이 된다.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하여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린다. 또

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며, 그 외에도 소화기계, 내분비계, 호흡기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타르Tar는 일반적으로 담배 진이라고 부르는 독한 물질이다. 타르 속에는 20여종의 강력한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담배를 피우면 각종 암(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위암, 방광암, 자궁암 등)에 걸릴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타르는 담배 연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혈액에 스며들어 우리 몸의 세포, 장기 등에 피해를 준다.

기체 성분에는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나이틀로스 아민계 물질 등 많은 독성 물질들이 들어 있다. 이들 중에서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퇴시켜 만성 저산소증 현상을 일으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장애를 주어 조기 노화현상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임신부가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마다 태어날 아기의 몸무게는 약 11g씩 줄어든다. 즉 임신중에 흡연한 모체에서 태어난 아기는 체중이 평균 200g이 적으며, 유산 및 조산율도 3.3배나 높고 기형아 출생률과 신생아 사망률도 높다. 이것은 흡연시 만성 저산소증과 혈액순환장애가 일어나 태아의 결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자보건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요즈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흡연, 특히 여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담배는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오래 피우면 피울수록 그리고 일찍 피우면 피울수록 그 폐해는 그만큼 커진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발육과 두뇌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성인병을 조기에 발생시킨다.

2. 흡연과 청소년 비행

청소년 흡연은 불안한 심리와 비행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해를 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까지로 문제가 파급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사회규범에서 첫 일탈행위로서 다음 단계의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된다. 즉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 간에는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에 까지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자제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각종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보고서」(체육부, 1989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약물 상호간의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흡연은 음주(.487)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그 다음이 본드(.250), 최면제(.197), 대마초(.173), 각성제(.132), 안정제(.120), 마약(.077), 히로뽕(.06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약물남용 시기가 비행행위 시기 보다 먼저 일어난다. 즉 13세에 흡연과 음주를 시작한 후, 14세에 반항행위를 시작으로 음란비디오 관람, 무단결석, 술집 출입, 금품갈취, 흥기소지, 가솔, 성관계, 학교 처벌, 경찰서에 불려간 경험 등의 비행이 나타나며, 14~15세에 각성제, 본드, 안정제, 최면제, 대마초 심지어는 마약과 히로뽕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

흡연, 음주 등이 일반적으로 비행 행위보다 먼저 나타나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금연과 금주에 관하여 잘 지도하면 약물 오남용과 비행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 흡연은 생리적 욕구에서라기 보다는 심리적 작용에 의해 비롯된다. 즉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성인 모방심리,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어른이 다된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자기과시욕, 호기심,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해소, 친구와 어울리기 위한 방편, 사회적인 억압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흡연학생들의 흡연동기로서 몇 년전까지는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제일 많았으나 최근에는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흡연을 한다는 청소년 비율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흡연학생들의 흡연동기 변화 추이는 표 4와 같다.

표 4 : 흡연동기의 변화

		중 학 생				고 등 학 생			
성별	연도	호기심 으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려고	기 타	호기심 으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려고	기 타
남자	1988	40.0	16.7	16.7	26.7	24.5	26.9	4.3	13.3
	1989	36.4	18.2	4.5	40.9	31.4	29.3	4.7	8.8
	1991	55.5	15.1	5.9	23.5	31.3	26.1	24.2	11.9
	1993	61.8	16.5	7.1	14.6	48.7	30.1	4.0	17.2
	1995	38.1	22.2	4.8	37.9	28.4	31.0	7.2	33.4
	1997	31.8	31.8	9.1	27.3	28.6	35.9	5.4	30.1
여자	1991	40.4	7.0	7.0	45.6	52.5	11.3	1.4	34.8
	1993	52.4	18.3	6.1	23.2	53.9	19.5	3.2	23.4
	1995	38.9	41.7	11.1	8.3	39.4	27.3	3.0	30.3
	1997	33.3	40.5	4.8	21.4	30.1	37.2	2.7	30.0

자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흡연을 혼자 시도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집단으로 감행한다. 즉 개인의 흡연욕구 보다 집단에 대한 동조 또는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

흡연행위는 청소년들의 꿈많은 의식세계에 전환점을 줄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반항·모방심리에서 시작되는 흡연행위는 대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인 인생관보다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조장할 수 있으며, 지나칠 경우 범죄의 늪에 빠질 소지를 만든다. 또한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의 인격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인격장애나 정서장애의 요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된 성인기로 자연스러운 이행을 어렵게 한다.

IV. 대 책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기는 불안정하고 변화 무상한 시기로 특징지어지며, ‘질풍과 노도의 시기’ ‘제2의 탄생기’ 등으로 불리어진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지나친 자아의식, 비판의식, 이유없는 반항, 소속에서의 이탈, 모순과 혼란 등이 나타난다.

육체적·정서적으로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들만이 아닌 국민 전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이미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금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담배 제조업체들은 청소년들을 골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자식들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언급하였으며, 1996년 8월에 담배를 마약으로 공식 선언했다. 클린턴은 1995년에 이미 담배 광고 규제, 담배자판기 판매금지, 담배회사들의 청소년 금연교육비 1억5천만달러 출연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규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이 담배를 마약류로 규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소년 흡연층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미국 굴지의 담배회사 RJ레이놀즈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어린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판촉계획을 비밀리에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담배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13세 아동들까지도 공략 대상으로 삼아온 것으로

1998년 1월에 공개된 '87년도 회사 내부분서에서 밝혀졌다. 이 문서에 따르면 테이놀즈사는 당시 경쟁사인 필립 모리스사의 말보로 담배를 피우는 13~24세 연령층에게 새로운 카멜 와이드 상표의 담배를 보급하기 위한 비밀계약을 수렴했다.

필립 모리스 등 미국 4대 담배회사는 1998년 11월 14일 미국 8개 주정부가 제기한 흡연자 치료비 청구 협상에서 이들 주정부들이 모든 법률적, 재정적 위협을 철회하는 대가로 배상금 2,0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담배회사는 오는 2025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비,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청소년 흡연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 주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청소년 흡연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둘째로 청소년들에게 강요나 억압 등 무리한 지시를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셋째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며, 넷째로 청소년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도하며, 다섯째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며, 여섯째로 가급적 성인들은 청소년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금연운동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1. 가정의 금연지도 및 친권자의 의무강화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귀여운 자녀의 생명을 그만큼 단축시킨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어른들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 중에 흡연자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가 가족 중에 흡연자가 없을 경우보다 학생들이 흡연할 위험성이 높았다(표 5, 6 참조).

가정불화·이혼·알콜중독·실업 등의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 흡연율이 높으므로 우선 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여야 하며, 무관심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지나친 기대와 간섭, 과잉 보호 등을 지체롭게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였으며 또한 이혼상당도 급증하고 있다. IMF시대 실직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 대부분이 부모의 부부싸움과 부모의 가출 등 가정불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가정이 해체되면서 교아가 늘고 있다.

표 5: 가족의 흡연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흡연여부(고등학교 남학생)

년도	학생흡연	가 족 흡 연		χ^2	유의도
		유	무		
1991	유	378(78.1)	106(21.9)	6.2	0.013
	무	735(71.9)	287(28.1)		
1993	유	319(79.9)	81(20.2)	12.6	0.001
	무	821(70.4)	345(29.6)		
1995	유	244(76.5)	75(23.5)	9.0	0.003
	무	590(67.3)	287(32.7)		
1997	유	325(80.6)	78(19.3)	19.8	0.001
	무	501(68.2)	234(31.8)		

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표 6: 가족의 흡연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흡연여부(고등학교 여학생)

년도	학생흡연	가 족 흡 연		χ^2	유의도
		유	무		
1991	유	40(76.9)	12(23.1)	0.9	0.352
	무	1165(67.8)	501(30.1)		
1993	유	20(90.9)	2(9.1)	3.6	0.057
	무	1340(69.9)	577(30.1)		
1995	유	30(68.2)	14(31.8)	0.0	1.000
	무	841(67.9)	397(32.1)		
1997	유	84(79.3)	22(20.7)	7.3	0.007
	무	815(65.9)	422(34.1)		

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부모는 자녀들 가방·책상 등에서 담배·성냥 등이 발견되거나 몸에서 담배냄새가 날 경우에는 대화와 설득으로 흡연의 근본적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흡연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님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또한 부모 또는 친권자가 자녀의 흡연을 제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본의 「미성년자 끄연금지법」 친권자처벌 조항과 같이 벌금(일본 4천엔 미만의 과료)을 부과하는 것도 부모에게 자녀들의 흡연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친권자의 의무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미성년자의 끄연을 하는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 조항은 없다.

최근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청소년 범죄대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정이 청소년을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적응시키는 첫 장소」라고 강조하고 자녀의 비행에 대한 부모의 감독, 관리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자녀의 비행에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자녀 교육에 돈을 쓰지 않았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일정 조건하에 중지할 것을 건의했다.

2. 금연교육 확대 실시

금연지도를 각급 학교 보건교육의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초등학교부터 교육 과정에 담배의 해로움을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학년별 금연지도 부서와 지역별(시·군·구 또는 읍·면·동)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군·구 보건소를 거점으로 실천 가능한 금연방법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금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내의 금연교육으로 시청각교육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를 통한 금연유도, 교과시간 중의 금연교육, 학생들의 자율적 금연서클 육성, 흡연교사들의 금연사례 소개 등이 있다. 미국의 중·고교에서는 보건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흡연자의 폐와 심장 등 장기를 찍은 사진과 표본 등을 보여주며 아예 담배를 만지지도 말라고 경고한다.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금연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흡연이 우리 몸에 끼치는 해독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학생들 스스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 2) 담배의 습관성과 일단 피운 후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여 니코틴 중독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 3) 주위에서 특히 또래집단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는 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분석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를 지도한다.
- 4) 학생들에게 역할극을 통하여 주위에서 담배를 권할 때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5) 담배광고에 관하여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 6) 자신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위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7) 학생들에게 흡연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통찰력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8) 학생들은 흡연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토의하게 하여 1)부터 7)까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교사들의 흡연이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흡연교사들은 술선 수범하여 금연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우상인 연예인들이 TV드라마 등을 통해 방영되는 흡연 장면이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송제작자와 연예인들은 이점을 우념하여야 한다.

3. 흡연학생의 중징계처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생의 교내 흡연을 철저히 규제 간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교내는 물론 학교 바깥이라도 학교관계 행사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 규칙을 어긴 학생에 대한 벌칙은 각 주의 학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일리노이주 211학군에 속해 있는 학교들은 학생이 금연 규칙을 첫번째 위반하면 학부모 면담이 있기까지 정학처분을 받는다. 학부모 면담 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금연 세미나에 참석하며 만약 참석하지 못하면 3일간 정학처분을 받는다. 두번째 위반시에는 학생은 5일간 정학처분을 받으며 학부모 면담이 있고, 세번째 위반하면 교장이 학생기록카드를 검토할 때까지 학생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사회적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하며, 학교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은 엄하게 처벌한다. 남학생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교장에게 회초리로 엉덩이를 맞는 「스패킹」이라는 체벌을 받는다. 부모에게는 경고장을 보내고 벌을 받은 학생이 또다시 담배를 피울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학교에서 선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금연학교에 보낸다. 학교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흡연학생은 전체의 5%를 밑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흡연 학생에게 유기정학처분을 내렸으나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된 이후 흡연을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을 꺼리고 금연학교 입교나 화장실 청소 등의 징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징계 방법은 크게 나누어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선도처분 등이다.

따라서 교실, 운동장 등 학교 전체구역을 완전 금연지역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철저한 생활지도를 하여 흡연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징계를 하여야 한다.

4. 청소년 금연을 위한 사회운동 전개

담배의 해독에 관해 가장 먼저 눈뜬 나라는 스웨덴으로 이미 1963년에 금연 협회가 생겨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3년 미네소타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금연운동이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제 흡연자는 비문화인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미국 의무총감 쿠프박사는 「담배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이라고 선언하고 미국을 금연사회로 만들겠다고 강력한 금연운동을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도 2010년까지 「담배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에선 해마다 「금연교육주간」이 되면 각급 학교 곳곳에 붙는 금연포스터에 인기 영화배우나 축구선수 등 청소년들의 우상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축구스타 판디 아마드는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에게 ‘나는 스피드와 몸놀림, 그리고 지구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만일 담배를 피웠다면 기침소리로 알려졌겠죠. 담배는 당신의 스태미나와 게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라고 포스터에서 말한다. 타고 있는 담배 한 개비가 등장하는 포스터에는 「담배연기 한 모금에는 4천여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목과 함께 담배에 들어 있는 유독물질과 공업용 용도가 설명돼 있다. 즉, 「아세톤-페인트 제거제」, 「DDT-살충제」, 「암모니아-마루 청소제」, 「카드뮴-자동차 배터리에 사용」 등이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분 앞에는 별표까지 붙어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우상인 스타들의 간곡한 설득과 과학적인 설명은 어떤 호랑이 선생님의 설교보다 효과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7대 권리중의 하나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내세우며 한국소비자연맹이 85년부터 금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88년 3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금연운동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하고 흡연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운동을 펴야 하므로 신문, 방송 등이 금연 캠페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TV와 라디오 방송은 매일 금연광고를 내보내고 모든 공공장소에는 금연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즉 사회가 전체적으로 금연을 고무하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청소년 흡연은 주로 가정·학교·사회교육의 부재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흡연 현상 자체만을 따로 떼어 「문제」로 해결하려 해서는 아니되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5. 학교 사회사업 제도의 도입

청소년 흡연은 가족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등 다른 유해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흡연의 해독을 교육하는 금연교육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줄 주위 사람이 없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사회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자아 존중감, 생명존중 교육,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이 금연교육의 효과를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흡연, 음주, 약물남용 등의 비행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학교 사회사업 *School Social Work* 제도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위기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마치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이 제도는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등과 연계성을 가져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나라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관계로 현재 청소년들이 가지는 욕구와 문제들 역시 다양하며 그 내용 또한 복합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은 더욱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교사들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 사회사업가 *School Social Worker*와 같은 전문인력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사회사업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는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상담이나, 서비스, 학생들의 욕구를 대변, 학교장 또는 교사들에게 자문, 지역사회내의 기존 자원 동원,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연계역할, 지역사회집단을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유리한 환경조성, 학생과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결 등이 있다.

6. 청소년 문화의 건전육성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남용 증가에 따라 비행이 빈발할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비행 문화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이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육성이 필요하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가정에서는 부모·자녀간의 격의 없는 대화로 상호이해를 깊게 하여 좋은 가치관과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며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정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청소년의 특기, 창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 그들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고 정신문화세계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암기·주입식 교육에서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협동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창조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의 참여활동을 통하여 협동성·자율성·민주성·창의성 등을 함양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을 위하여 학교의 휴식공간, 예능교실 등 학생복지시설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성인 중심의 퇴폐문화환경을 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많이 설립하며, 자유스럽게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문화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청소년 문화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놀이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흡연, 음주, 약물남용 등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놀이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며,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기도 한다. 놀이는 또한 신체활동을 동반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도 기여한다. 놀이는 이처럼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V. 결 론

흡연과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관련짓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나 오랜 기간 병으로 고생하며 천수를 다하지 못한채 일찍 죽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많이 피우거나 계속해서 피울 경우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 발육과 두뇌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각종 성인병을 조기에 발생시킨다. 특히 한창 두뇌가 발달할 시기인 청소년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흡연률이 선진국 청소년들 보다 높다는 것은 장래 우리나라의 두뇌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면 금연은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큰 변화의 기미가 없다. 담배자체가 국가 전매사업으로 나라에서 생산보급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세수를 올린다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따위를 벌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현상은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반해 여성 흡연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며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청소년 흡연은 이제 청소년 문제이기 이전에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흡연 규제 정책을 세우고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흡연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가정, 학교, 사회 등 우리 모두의 몫이다. 1998년도 「세계금연의 날」 슬로건인 “담배 연기 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은 모든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 없이, 그리고 흡연을 부추기는 행위와 광고로 인해 생기는 흡연 욕구에 대한 유혹도 없이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참 고 문 헌

- 김일순(1988), 「흡연과 건강」, 의료보험연합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
 주왕기(1989), 「약물남용」, 세계사.
 박명윤·김일순(1990),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지도지침서」, 체육부.
 체육부(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체육청소년부(19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연구」.
 문화체육부(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1997), 한국 중·고등학생의 흡연양상의 변화(1988~1997).
 U. S. DHHS(1989),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WHO(1997), *Annual Report*.
 WHO(1998), *Press Release*, 28/5/98.

ABSTRACT

A Study on Smoking of Korean Youth

Park, Michael-Myungyun

We live in a world where tobacco use is killing 3.5 million people each year. Tobacco smoking is the chief single avoidable cause of death in our society and the most important public health issue of our time. Every year, 31 May, is designat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s the World No-Tobacco Day. The slogan for the year of 1998, "Growing up without Tobacco", reinforces the belief that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grow up without tobacco and without the pressure from peers and from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cording to the nation-wide surveys on cigarette smoking of students in Korea, prevalence rates of smoking among male students have been increased from 1.8%(1988) to 3.9%(1997) in middle school and from 23.9%(1988) to 35.3%(1997) in high school respectively. Among female students, surveyed in 1997, the proportions of current smokers in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3.9% and 8.1% respectively. The most common motivations for smoking were "from curiosity" and "to make friends".

There are several complex and interacting reasons why young people take up smoking. They may be influenced by seeing adults, ranging from family members to film stars and sports heroes who smoke. Also there are high percentages of teachers and medical professionals who smoke. If we expect to reduce smoking among young people, adults must set the example, and those who are in charge of defining public policies have a particularly important responsibility to create conditions for a tobacco-free environment.